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 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 진행,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에 집한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총동원령의 선봉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비상한 열의에 넘쳐있다. 혁명의 년대마다 칠강제증상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황철의 로동계급은 지금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폭풍서 내달리는 맹렬한 돌격장군으로 주체혁명 선전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어머니당 대회를 최상최대의 성과로 맞이할 혁명적기상으로 용감처럼 뛰어오르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제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생눈길을 헤치는 최후병, 전진의 돌풍을 열어나가는 선구자가 되어 집단적열정의 불꽃을 높이 들고 승리의 직선주로를 힘차게 달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로동계급의 정치력발동에 선진적인 힘을 넣고 언제나 그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며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임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선전화물, 끝날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속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끝날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장 책임비서, 임춘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을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온순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팔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세전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강령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억센 기동을 세워온것은 황철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황철의 전세대 로동계급이 해방후 일제가 파괴한 로를 불과 텃밭사이에서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아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였으니 전후에는 미국놈들이 파괴한 50평로자리에 100평로를 일떠세우고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대형용광로를 보란듯이 일떠세워 조선로동계급의 본래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수심차레나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제철생산공정을 꾸려주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시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당중앙을 용위하고 거대한 중산의 동음으로 조국에 비약의 승세를 더해준 기업소를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사》라고 하시며 우리 황철로동계급에게 영웅적로동계급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황철을 자동화의 본보기로 꾸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고인의 행군을 하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주체철생산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수백명의 끝없는 세대군인들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업소의 로동계급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제로 힘있게 불려오시게 하시니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황철로동계급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 우리 식의 용광로에서 붉은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회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송의 보검으로 들어오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나아가며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다 뚫고나갈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것이 황철로동계급이 주체화의 한걸음 곳곳이 걸어오는 과정에 체득한 철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공업발전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렸다. 그는 오늘 황철로동계급앞에는 경에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자의 대회를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이 땅에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억척벌레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이라는 소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속에 조아박고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총정 열의적선물을 마련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천지공과가 탁차와도 신군조선의 운명이시며 미대인 경에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오나가기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유일정통로동계급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작주의 모범으로 그들을 총동원령에 힘있게 불려오시는 투쟁의 기 버려나가기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혁신시

로, 공세적으로 벌리며 모든 선전 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온 기업소가 불도나기나당 부글부글 끓어 번지게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장철직장을 비롯한 생산부문부터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보장부문에서도 반대적 혁신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칠강제물 더 많이 팡팡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 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기술개발 능력과 제품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벌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모든 생산 공정에 기계유정교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펬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수입병을 뿌리뽑고 국산화의 원바람을 일으키며 원료와 연료의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칠강제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새로운 조선속도,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 기술신비주의를 끝이 버리고 곁단을 향하여 새것을 끊임 없이 창조해나가기 하며 무담대는 단관을 통이 큰 작정으로 완강하게 뚫고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언제나 대중과 한가마발을 먹으며 생산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신 작주의 모범으로 그들을 총동원령에 힘있게 불려오시는 투쟁의 기 버려나가기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혁신시

로, 공세적으로 벌리며 모든 선전 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온 기업소가 불도나기나당 부글부글 끓어 번지게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장철직장을 비롯한 생산부문부터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보장부문에서도 반대적 혁신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칠강제물 더 많이 팡팡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 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기술개발 능력과 제품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벌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모든 생산 공정에 기계유정교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펬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수입병을 뿌리뽑고 국산화의 원바람을 일으키며 원료와 연료의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칠강제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새로운 조선속도,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 기술신비주의를 끝이 버리고 곁단을 향하여 새것을 끊임 없이 창조해나가기 하며 무담대는 단관을 통이 큰 작정으로 완강하게 뚫고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언제나 대중과 한가마발을 먹으며 생산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신 작주의 모범으로 그들을 총동원령에 힘있게 불려오시는 투쟁의 기 버려나가기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혁신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영국 특명 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작별 방문하여온 마이클 존 키포드 주조 영국 특명 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결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로동자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 중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관동되 여있는 정치신조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에도 불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사랑으로 헌신의 찬란 리를 변함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경에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 라고 하시었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 였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금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자국은 조국땅 그 어디 에나 혁명적 수호성이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 구강병에방원에도 잊지 못할 가슴속에는 이야기가 새겨져있다. 주제 70(1981)년 6월 어느날이었다. 함경남도에서

당 보 를 통 한 교 양 사 업 들을 불려오기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현장에 내려간 한 일군은 작업의 휴식함에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 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혁명 활동수익이 실린 당보를 가지고 당원들과 탄부들에게 들어가 그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이렇듯 함경남도 구강병에방원은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인민애에 떠날때로 새로 건설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원을 떠나시면서 병원을 크게 기고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어놓았고 선전만 하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실지로서 이 병원에서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그후 함경남도 구강병에방원은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을 드 겠게 전하며 물을 활짝 열었다. 왕들만 있는다면 자리에 우리 로동계급, 우리 인민이 앉았다. 오늘날 온 나라 인민들은 이민 위원을 파견하듯도 삼고서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사람에 대하여 깊이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혁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게 하자

백두의 칼바람에 만선기 뿔뿔히 날려가리

년 단 물고기잡이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원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공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넘치게 할 일념으로 어로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에 투쟁의 뜻을 단 이들은 날마다 싸우며 어장마다에서 치열한 물고기잡이를 벌이며 낚고 낚고 물고기잡이계획을 기꺼이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소리를 더 높여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자기 부름, 자기 단원 사업을 자기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며 하며 땀방울,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물고기대중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인민군대 수산부서 어로전투를 보라. 우리가 그들처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떨쳐 일어나 혁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마쳐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자!

나이지속한 선장도, 나이 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서로서로 피땀의 심장의 뱃살을 나누며 전투소리를 차지하였다. 문남철, 박영호, 김진철 등 무를 비롯한 사업소일꾼들이 혁신적인 안목으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있다.

어로공들이 낚아다를 파곳까지 헤쳐서 한창바다를 리원할때부터 강인하고 고집스러우며 이르는 동해어장에서 물고기잡이전투를 치열하게 벌였다.

이들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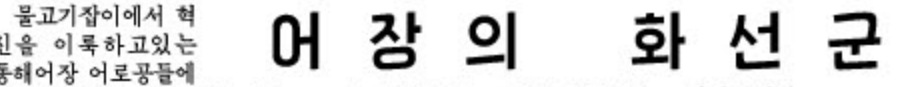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동해어장 어로공들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동해어장 어로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사나운 날바다바람에 자기의 초소를 정하고 어로공들의 건장강진을 위해 낚고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인 어로공들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있다.

위대 한 병도 자 겸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고 들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어장의 화선군의들

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놓았다. 낚고, 이른 새벽에 중한자들이 제기된 생선전투를 건담하며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어로공들의 투쟁을 따르며 많은 어로공들이 활약하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어로전사들의 심장의 맥동을 더해 주며

위대 한 병도 자 겸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전투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생산과 투쟁을 앞당기며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리워가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경제전투의 목소리, 어로공들의 당정책결사관철의 뉘는 합성 힘사게 울려온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최고 검찰소 대표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인민을 위한 길에 혁신의 자욱 새기며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명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업윤철, 김근국, 리성금선수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자기 부름, 자기 단원 사업을 자기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며 하며 땀방울,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이 벌인 전투는 변덕이 아니라 세대의 그늘이! 거망과 드날처럼 을 리적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할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얻어내고있다.

